

■ <요약> '21세기 일본 경제 재생 전략'의 방향

- (추진 배경) 장기 불황과 戰後 일본 경제를 지탱해 온 일본적 경제 시스템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
- (주요 내용) 일본 경제의 재건 스케줄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3단계로 분류, 경제 회생 시나리오를 제시함
 - 제1단계(1999~2000년)는 '버블 경제 청산 기간'으로서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함
 - 제2단계(2001~2002년)는 '경제 건전화 기간'으로 경기의 자율 회복 기조 정착과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함
 - 제3단계(2003~2008년)는 '재정 재건 기간'으로 재정 건전화, 세제 개혁에 중점
- (시사점) 구체적인 경기 회복 일정과 단계별 목표가 제시된 것이 특징임
 - 구미 선진국을 따라잡는 'Catch-up 시대'와 다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시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, 이의 육성을 위한 제반 시설 및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특별히 강조됨

□ 추진 배경

- 일본 총리 직속 자문기관인 經濟戰略會議는 최근 ‘21세기를 향한 일본 경제의 재생 전략’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함
 - 經濟戰略會議는 지난해 8월 경제 회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오부치 총리가 발족시킨 기관으로서, 경기 회복과 경제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단기적·중기적 전략을 검토해 옴

- 동 전략의 추진 배경은 첫째, 전후 최악의 경기 불황에서 시급히 벗어나기 위한 것임
 - 96년에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 경기는 97년에 다시 침체하기 시작해 23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(-0.4%)을 기록하였으며, 98년에 들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(-2.4%)을 보임
 - 장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률 급상승(98년: 4.3%)은 실질 소득 감소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함

- 둘째, 실물 경제 악화와 함께 전후 50여년간 일본 경제를 지탱해 온 일본적 경제 시스템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
 - 과거 구미 선진국 따라잡기(Catch-up) 시대에 적용된 광범위한 공적 규제, 경쟁 제한적인 거래 관행, 경직적인 기업 관련 제도 등이 오늘날 기업의 창의적인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
 - 이에 따라 독창적 연구, 고도 정보기술, 창조적人材 등 ‘知的 資本’의 축적이 구미에 비해 뒤떨어짐

-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재도약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·단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

□ 주요 내용

- 본 보고서는 98년 12월 ‘21세기를 향한 경쟁 사회 구현’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 보고서를 근본으로, 일본 경제의 재건 스케줄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을 3단계로 분류, 경제 회생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
 - 제1 단계 : ‘버블경제 청산 기간(1999~2000년)’에는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금융 시스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함
 - 제2 단계 : ‘경제 건전화 기간(2001~2002년)’에는 경기의 자율 회복 기초 정착과 함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함
 - 제3 단계 : ‘재정 재건 기간(2003~2008년)’에는 재정 건전화 지향, 세제 개혁 등을 추진함

< 21세기 일본 경제 재생 전략 >



- 동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 회복, 중기적으로는 재정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즉 2001년까지 2%대의 성장률(잠재 성장률)을 회복하고, 2002년에 경기를 자율 회복 궤도에 진입시킨 후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2008년까지 중앙·지방 정부의 재정 수지를 균형시킨다는 것임
 - 97년 현재 일본의 국채 발행 잔고는 254조엔(GDP 對比 49.3%) 규모이며, 세

출 증가 추세를 방치할 경우에 10년후에는 482조엔(GDP 對比 70%)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

- 구조 개혁은 ‘작은 정부’ 실현과 ‘세계 개혁’에 중점을 두고 있음
 -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무원수는 10년 동안 25% 삭감하며, 국공유 재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언함
 - 장기적으로 후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함
 - 공정한 세계 실현을 위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는 물론 과세 대상 확대 등 세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
- 고도 정보화 기반 시설 등 지적 자본의 축적·확충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벤처 등 신규 사업 창출을 위한 제반 환경을 정비함
 - 고도 정보 통신 시스템의 확충과 기술 혁신, 연구 개발, 창조적 인재 등 지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정비·육성함
 - 각종 규제 완화, 제도 개혁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함

□ 시사점

- 본 보고서의 특징은 일본이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경기 회복 일정과 단계별 목표를 최초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임
 - 또한 구미 선진국을 추격하는 Catch-up 시대 이후 지식 기반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, 이의 육성을 위한 제반 시설 및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임
- 본 보고서는 경제 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일국의 경제 시스템이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
 - 경영 자원 가격, 사회자본 정비 상황, 제도 등을 포함한 경제의 전반적인 체계가 사업 활동을 하기에 보다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

■ 정오영 연구위원 oyjoung@hri.co.kr ☎724-4026